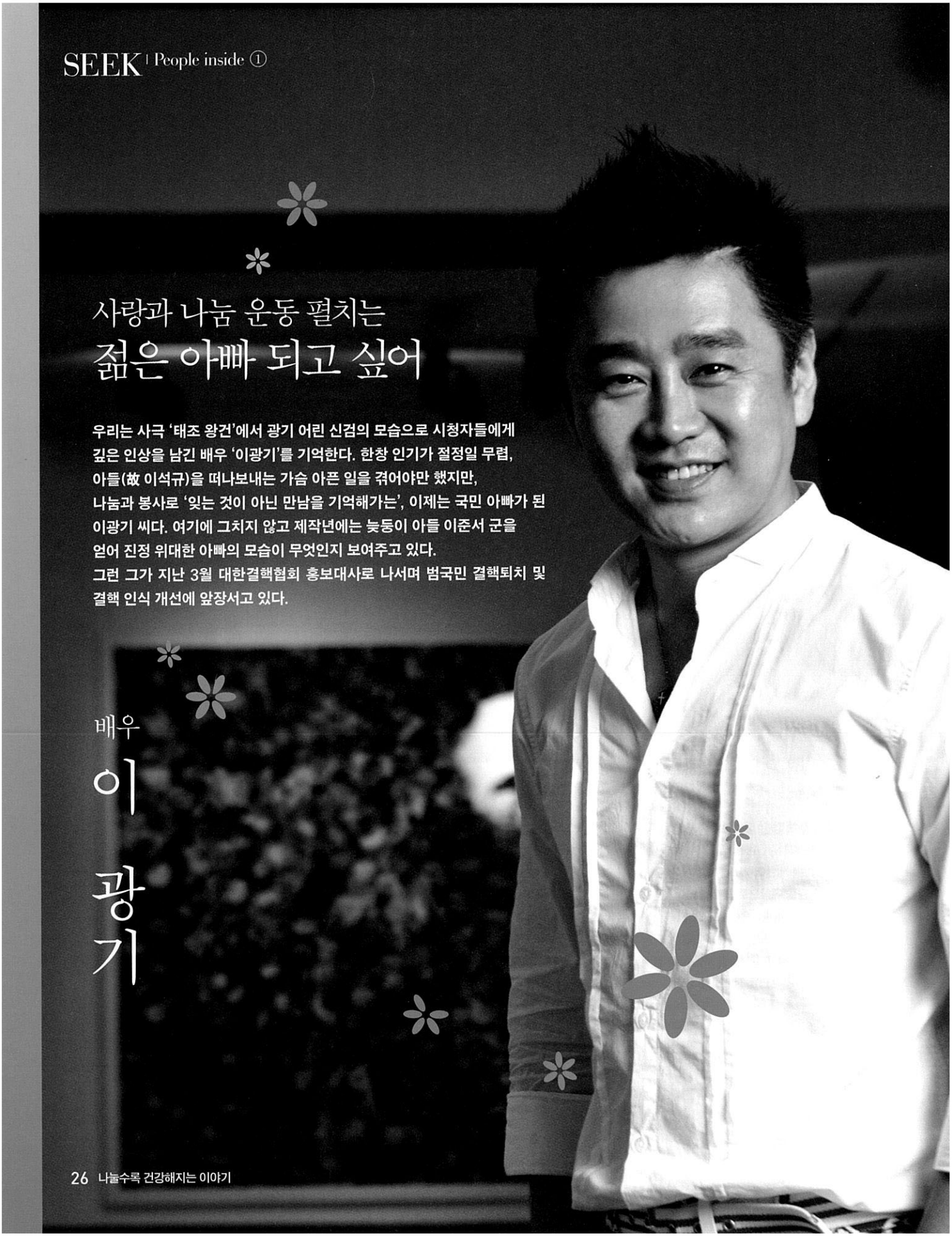

사랑과 나눔 운동 펼치는
젊은 아빠 되고 싶어

우리는 사극 '태조 왕건'에서 광기 어린 신검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이광기'를 기억한다. 한창 인기가 절정일 무렵, 아들(故 이석규)을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만 했지만, 나눔과 봉사로 '잊는 것이 아닌 만남을 기억해가는', 이제는 국민 아빠가 된 이광기 씨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작년에는 늦둥이 아들 이준서 군을 얻어 진정 위대한 아빠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그런 그가 지난 3월 대한결핵협회 홍보대사로 나서며 범국민 결핵퇴치 및 결핵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배우
이광기

-릴레이 캠페인 메시지-

함께하면 한 뼘, 둘이하면 두 뼘
함께하는 결핵퇴치, 한 뼘만큼 줄어듭니다.
결핵퇴치, 우리 모두 함께해요!
Another day with you!

우리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은 그가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아이티와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선경매를 통한 모금활동이 펼치고 있는 서울옥션(강남점)이었다. 그 어떤 활동보다 나눔 활동에 매진 중인 그는 이날도 이곳에서 방문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행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머뭇대거나 망설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작품 하나하나 열과 성의를 다해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선 그저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이 면면 서려 있을 뿐이었다. 전시장 내 진열된 티 하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는 이곳에 있지만, 제가 맡고 있는 일을 큰 틀에서 보면 협회와 같은 '나눔'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상생 나눔이지요. 제가 들고 있는 이 티도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이번 자선 경매에 전시된 것입니다"며 뿌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협회를 알기 전 결핵 질환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결핵을 앓던 친구가 있었고, 그를 통해 결핵이란 쉽게 완치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됐습니다"라며 말문을 연 그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진국이라지만, 결핵 감염률이 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라는 사실 아시나요? 그저 놀랍지요. 저 또한 처음 그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위촉 후 홍분된 마음입니다"라며 홍보대사로서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제 역할이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결핵 예방을 알리고, 나아가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은 없기 때문"이다. 홍보대사로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결핵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이광기 씨. 그는 덧붙여 "결핵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 하는 것을 봤습니다"라며, "규칙적인 약 복용 기간이 6개월, 완치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조급해하지 말고 현재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을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떠나가기를 기다린다면 마음까지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 면역강화는 물론 건강 관리차원에서 "자연을 벗하는 운동"이 최고라는 그는 "늦둥이가 이제 18개월이 됐는데 이 녀석이 자라 초등학생이 될 무렵이면 저는 나이 쉰 줄이 넘습니다. 저 또한 부지런히 운동해 젊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라며 털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실제, 평일 시간이 날 때마다 웨이트트레이닝을 중점적으로 등산, 야구를 즐기며 평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한편으론 "어떤 병이든 초기에 발견하면 참 좋겠지만, 예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리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광기 씨는 대한결핵협회의 60주년을 맞아 "국익을 위해 60해 동안 이끌어온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홍보대사로서 발병률 1위라는 순위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행보를 전했다.

한편, 이광기 씨는 이번 행사에 이어 '한국 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될 행사에 참석 예정이다. 그의 쉬지 않는 나눔의 길에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